

소문과

비련의
밤

서문	2
평론	6
김재민이	16
박미라	30
오제성	44
이은영	58
정정호	72
전경	86
작가 약력	101

소문, 괴담, 루머,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대개 진실과 거짓, 실체와 허구, 삶과 무지 사이에서 시작되어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때로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사이에서 순식간에 커지다가 작아지고, 누군가의 상상과 해석을 거쳐 그 모양을 달리하며 퍼져 나간다. 때때로 잿빛 불안과 걱정, 핑크빛 기대와 상상을 오가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 소문은 그에 가닿는 사람의 마음이 있기에 존재하고 또 그만한 힘을 가진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소문을 키워드 삼아 도시 '청주'의 이면에 주목한다. 전시는 '-라더라', 라는 작은 어구에서 시작해서 지역에 대해 새로 말하기를 시도한다. 소문처럼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소문처럼 전해지며, 소문처럼 원형과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모아보고자 한다.

《소문과 빌런의 밤》은 지역을 마주한 개인이 진실에 자연스럽게 근접하거나 미끄러지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뜬구름 이야기, 흥미로운 이미지와 서사를 소개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다섯 작가 김재민이, 박미라, 오제성, 이은영, 정정호는 청주라는 도시를 마주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잘려나간 시공간을 이어 붙이며 어렵פות이 알려진 것들에 구체적인 형태와 목소리, 이미지, 서사를 발견한다. 과거와 현재, 상실과 지속 그리고 변화, 기억과 망각의 언저리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희미한 소문으로 남겨진/남겨질 장소와 공간, 사물과 이야기에 주목한다. 전시는 청주라는 지역의 장소와 사물, 시간과 이야기가 기존에 갖던 전형성을 탈피하며 한 개인이 그것을 마주한 방식을 구체화해서 보여준다.

정정호는 지역의 숨은 설화나 민속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믿음이 현재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고 작동하는지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용바위 전설'에서 유래한 용암(龍岩)동 주변에 용과 관련된 지명과 장소를 답사했다. 신화와 민속학적 단서를

바탕으로 청주에 있는 용과 관련된 장소-작은 용굴과 큰 용굴, 구룡사와 구룡산, 용바위 그리고 동굴 인근에 있는 동물의 뼈와 우물 등-들을 다니고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신화 속의 존재 용의 흔적을 찾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공간에서 용의 존재를 상상하고 새로운 장면과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의 작업은 전설과 결부된 지명이 현실의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현재/현실의 풍경에서 과거/비현실의 존재는 어떻게 발견되며 의미화되고 있는지 드러낸다. 나아가 사실과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인 사진 매체가 과거의 이야기, 비현실의 존재를 현실로 불러들일 때 어떻게 발화할 것인지 탐구한 경과를 보여준다.

오제성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설화와 전설을 영상, 설치, 조각으로 만든다. <용화사의 추억>(2024)은 청주의 무심천 변에 있는 용화사의 석조불상군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작가는 석조불상의 시대적 미감과 제작방식, 의미를 넘어 시간이 흐르고 일상 경관이 달라져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불상들이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존재해왔음에 주목한다. 용화사에 있는 옛 흑백사진에서 일곱 점의 석불은 지금과 달리 모두 야외에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그날의 추억을 간직했다. 작가는 용화사 불상의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상을 다소 추상화된 형태로 재현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듯 모호하지만 명징한 모습이다. 작가는 불상 곁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색의 세라믹 오브제로 형상화하고 불상 주변에 구성해서 지난 시간 청주의 사람들과 용화사 석불이 함께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은영은 실재했지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심상을 시적으로 은유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재개발이 예정된 청주 구도심의 사직동에서 진행한 신작을 소개한다. 그는 재개발이 확정되며 사람이 떠나면서 빈집으로 스산해진 사직동 골목을 조용히 거닐며 이곳에 머물다 떠나간 사람들의 시간과 흔적을 살피고 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외갓집의 구옥을 추억했다. <소문의 얼굴>(2024)은 사직동의 공가에서 본 철제 창살을 모티프로 제작된 세라믹 작업이고 <꺾어진 나뭇가지에서 복사꽃이 피었다>(2024)는 오래된 주택가에서 마주한 외부 이미지를 수집한 뒤 재구성한 것이다. 작가는 사직동 골목에서 공간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 이를테면 빈 집의 녹슬고 손때 묻은 창살, 굳게 닫힌 대문과 담벼락, 그것을 넘어 뻗어 자란 꽃가지 등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를 통해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희미한 이야기를 상상했다. 그의 작업은 동네의 잔상을 바탕으로 사직동에 대한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내어 이곳의 이야기가 어딘가로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박미라는 의식과 무의식의 틈에 자라나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주로 검은색의 재료를 사용해 새겨나간다. 절단되고 변형된 신체, 여러 개의 구멍, 장면과 장면을 잇는 밧줄, 차원을 통과하는 문어 다리 등의 요소는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 차원과

차원 사이의 벽을 허물며 관람자가 마주한 화면의 세계를 무한 확장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말 없는 땅>(2024)은 현재의 시점에 우리가 마주한 풍경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의 면면이 있을 수 있음을 단면이 잘린 케이크의 구조를 통해 전하는 회화 작업이다. 케이크의 겉면 아래 층층이 서로 다른 이야기의 단서가 존재한다. 이는 화면 내에 시간의 흐름대로 순행하지 않는, 다층적인 서사와 맥락을 생성한다. 박미라는 우연히 상당산성에 관한 영상을 보며 이 작업을 시작했다. 영상은 안온한 자연 풍경이 펼쳐진, 시민들이 애호하는 휴식처 상당산성 언저리에 있는 묘지가 사실 과거에 권세 있는 누군가의 묘지도 아닌 유명한 친일파 후손이 묻힌 묘지이며 상당산성의 상당 부분이 이 일가의 사유지임을 지적한다. 우리가 마주한 평범한 현재의 풍경 이래 채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작가는 “과거의 이야기는 긴 끈으로 현재와 이어져 있으나 사실 그 끈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김재민이는 지역 리서치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도시 외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권 변두리 공장지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작가는 한때 대도시의 형성을 이끌었던 거대한 방직공장이 21세기 들어 대규모 주택지로 재개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만나기만 만날진대 너도성공 나도성공>(2024)에서 작가는 청주 북대동의 지웰시티 자리에 있었던 방직공장 대농의 안양 시절을 따라가본다. 안양에는 금성방직과 태평방직이 있었다가 대농이 들어섰고,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되었다. 대농은 청주로 이전했다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쇠락했고 지금은 지역의 새로운 부촌으로 변모했다. 작가는 ‘대농’이란 이름과 공장 굴뚝만이 남은 안양의 땀길과 안양천을, 지금은 공장의 흔적조차 사라진 청주의 지웰시티와 석남천을 달린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공장의 번영과 쇠락, 도시 개발과 부의 창출 과정을 달리기라는 일상적이고도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기록하며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한다.

대농과 지웰시티, 무심천 용화사의 석조불상군, 사직동과 상당산성, 용굴과 용바위 등 용과 관련된 장소들까지, 다섯 작가는 청주의 여러 장소와 사물을 마주하고 사람을 만났다. 전시는 누군가의 기록이나 흔적을 더듬으며 현재의 땅 위에서 끊어진 시간의 틈새를 이으며 청주라는 도시가 간직한 여러 차원의 이야기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여기서 관람객은 소문의 진원지를 상상하고 탐색하는 또 다른 주체가 된다.

이번 전시는 문화인류학적으로 진실과 정보를 추적하는 ‘진실을 향한 여정’이 아닌 하나의 원형에 대한 울퉁불퉁한 오역과 재구성을 시도한다. 너무 익숙하기에 잘 보이지 않았던 도시의 풍경을 새로운 시선, 낯선 눈으로 다시금 조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예술적 접근을 전시의 형태로 공동체 안에서 공유함으로써 지역이 보유한 것들은 지금의 오늘에는 어떤 시선으로 감각하고 인지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전시명은 안승범 시인의 동명의 시집 『소문과 빌런의 밤』에 수록된 시 「피 흘리듯 안녕한 이사」의 구절 중 “먼 숲과 먼 이름이 고요하듯이 객관을 가지지 못한 우롱차를 차마 다 마시지 못했다, 여기서 의미 이전의 기억들에게 편지를 써 왔노라고 제자리가 궁금한 사연들이 불시에 찾아오던 밤들에 대해 그는 결국 말하거나 말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에 영감을 받아 차용했다.

소문은 집단적 환상과도 유사한 면을 지닌다. 무의식 속에 내재된 꿈을 검열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소문 역시 사회가 맞닥뜨린 현실과 더불어 그 현실 너머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스 J.노이바우어, 『소문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말들의 ‘첫비롯(始作)’을 찾는 것은 부질없다. 그러나 말은 언제나 ‘첫비롯’에 의해 탄생한다. 텅 빈 빈탕에 솟은 말로서. 그렇게 비롯된 말들은 까마득하게 돌고 돌면서 굴러다닌다. ‘까마득’은 ‘감아’에 ‘아득’을 더한 말이다. ‘까마득하다’는 감아 돌면서 아득하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죽지 않고 떠도는 말들을 우리는 ‘소문’이라고 한다.

#1. 뒹굴다가 살아남은 말들

말은 첫마디를 터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말머리를 가졌으니 머리가 있고, 그 이야기의 맨 끝을 말꼬리라고 하니 분명히 꼬리도 가졌으리라. 말머리는 텅 빈 빈탕에 솟은 말의 ‘첫비롯(始作)’일 테지만, 말꼬리는 사실 맨 끝이라기보다는 바람에 흩날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말의 ‘홀림(迷惑)’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의 홀림이란 이야기의 맨 끝자리에 ‘끝’은 없고 그저 ‘맨’이 휘몰아치며 소용돌이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말 ‘맨’은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이요,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일 때 쓰는 말이다.

다석 류영모는 노자(老子)의 ‘대도심이(大道甚夷)’를 “큰길은 넘오도 맨이지만”이라 하여 ‘이(夷)’를 ‘맨’으로 풀었다. 그 까닭은 그 말뜻이 한 동그라미로 ‘궁궁(弓弓)’을 짓고 일으켜 돌아가기 때문이다. ‘심(甚)’을 ‘넘오도’로 한 것은 읽는 소리로 ‘너무도’에 맞으면서 ‘넘침’의 뜻을 함께 갖길 바랐기 때문이다. 다석은 입말에 뜻을 더하는 한글 놀이를 즐겼다.

무엇의 ‘끝’이라 하면 거기 그 자리에 딱 멈춰야 한다. 그런데 ‘말꼬리 잡다.’, ‘말꼬리 물다.’, ‘말끝 잡다.’라는 말들이 있듯이 말꼬리는 그치지 않아서 마쳐지지

않는다. 때때로 꼬투리에 트집까지 잡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간다. 끝나지 않는 말꼬리 가운데에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더러 낚가를 맴돈다.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잘 알아차려 지지 않을뿐더러 그 능력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넘어 초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물고 가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쉽게 홀린다. 그 홀림에 도깨비가 숨어 있다. 무언가에 깊이 홀려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을 ‘도깨비 홀림(魅惑)’이라고 하는 이유다.

‘첫비롯’으로 솟은 말이라 해도 이미 뻗어진 말이니 그것을 오롯한 ‘참(眞)’이라고 할 수 없고, ‘홀림’으로 흩날려 떠도는 말속에 도깨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말로 마디마디 이루는 말의 무늬는 말머리에서 말꼬리까지 똑똑 끊어져 돌아다니는 허깨비 ‘허꿀(虛像)’이니 본디 참 그대로의 ‘참꿀(實像)’을 가지기 어렵다. 게다가 끊어진 말의 ‘툼바구니’로 뒤틀린 사람들의 목마른 ‘하고품(欲)’이 파고들어 엉겨 붙은 이야기들은 때때로 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기우뚱거린다. 희한하게도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들리는 말들은 활활 살아 올라서 여기저기를 굴러다닌다. 뒹구는 돌은 잠들 새가 없듯이 구르는 말에도 이끼가 끼지 않을까? 이끼가 끼지 않는 말은 ‘참(眞)’이다. 그러나 수많은 말들로 엉겨 붙어 이끼가 낀 말들은 못났다(醜).

입에서 입으로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뒹굴다가 살아남은 말들은 제 스스로 신을 낳기도 한다. 신나서, 신이 나서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 이야기의 ‘첫비롯’에 신령하고 기묘한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2.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¹

한스 J.노이바우어는 『소문의 역사』에서 “소문은 풍문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체로 하여 어떤 그룹 내에서 유통되는 시의성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모두가 말한다고 해서 소문인 것은 아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소문이다.”라고 정리한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는 그것.²

소문을 물고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 소문을 입에 물고 그것을 다시 휘몰아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소문의 말꼬리를 물고 가는 누군가는 불특정한 사람들이다. 사실 누가 소문 속에 있고 그 소문을 돌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어찌면 모든 걸 엿듣는다. 소문은 마치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퍼진다. 전염병 옮듯 소문도 그런 방식으로 감염되는 것이다.

1 한스 J.노이바우어 지음, 박동자 외 번역, 『소문의 역사』(세종서적, 2001)에서 가져왔다. #2의 글은 이 책의 내용을 글쓴이가 줄이고 바꾸고 거기에 글쓴이의 생각을 집어넣어 키운 것이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그리스로마신화 인물백과』, 『세계문학사 작은사전』을 참조했다. 열쇠말은 ‘파마’, ‘페메’, ‘아이네이스’, ‘베르길리우스’이다.

2 ‘카더라 통신’은 국어사전에 올랐다. 그 뜻은 “근거가 부족한 소문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사람 또는 기관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물려다니는 말들은 기어이 말의 꼴을 만들어 낸다. 말의 꼴인 ‘소문(所聞)’은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생겨나는 소문은 반드시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마련이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 ‘파마(Fama)’는 소문과 명성의 신이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페메’로 표현되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점점 커가는 소문을 의인화했다. 라틴어로 파마는 명예, 여론, 평판, 소문과 같은 뜻이다.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장편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를 보면, “페메는 세상의 악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녀는 움직이면서 강해지고 나아가면서 힘을 얻는다. 페메는 처음에는 겁이 많아 몸집이 작지만 금방 하늘로 솟고, 발로는 땅 위를 걸으면서 머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다.”고 그린다. 다른 한편으로 파마는 초자연 능력을 가진 괴물로 그려졌다. 눈과 입이 수없이 많고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날아다닐 수도 있다.

파마는 처음에는 무서움 때문에 조그맣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빠르게 공중으로 자라났고, 그녀의 몸은 깃털, 눈, 혀, 말하는 입, 뾰족한 귀로 덮여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며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파마가 늘 부정적 이미지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는 빛의 형상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여신, 명예의 여신으로도 나타났으니까.

파마는, 아니 ‘소문’이라는 말의 바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는 더더욱! 어디에나 있으면서 수천수만 개의 출입구를 가진 인터넷은 오비디우스가 그린 ‘파마의 집’과 놀랍도록 닮았잖은가!

#3. 다섯 예술가의 창조적 슬수

〈소문과 빌런의 밤〉은 “소문, 괴담, 전설, 그리고 이야기들”에 관한 전시다. 기획자는 그런 것들이 진실과 거짓, 실체와 허구, 앎과 무지 사이에서 시작되어 지나칠 정도로 현실적인 이야기로 전개된다면서,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사이에서 순식간에 커지다가 작아지고, 누군가의 상상과 해석을 거쳐 그 모양을 달리하며 퍼져 나간다. 소문은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진실에 가닿고자 하는, 남이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커지곤 한다.”고 버른다. 그렇게 버른 말로 ‘청주’라는 도시의 속살을 파고들었다.

전시는 “현재의 시점에서 잘려나간 시공간을 이어 붙이며 어렵듯이 알려진 것들에 구체적인 형태와 목소리, 이미지, 서사를 발견”하고, “과거와 현재, 상실과 지속 그리고 변화, 기억과 망각의 언저리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희미한 소문으로 남겨진/남겨질 장소와 공간, 사물과 이야기에 주목”하며, “문화인류학적으로 진실과 정보를 추적하는 ‘진실을 향한 여정’이 아닌 하나의 원형에 대한 율통불통한 오역과 재구성을 시도”한다. 그렇게 발견하고, 주목하고, 시도해서 전시를 꾸린 예술가들은 김재민이, 박미라, 오제성, 이은영, 정정호였다. 그들이 꾸리고 꾸민 예술의 무늬를 살핀다.

김재민이 — 끝없는 맨 꼭대기를 보다

〈만나기만 만날진대 너도성공 나도성공(Daenong Factory Run)〉은 청주시의 ‘대농 청주공장’을 엿보고 엿들어서 듣보는 영상 작업이다. 관객은 이 짧은 영상이 만들어 낸 근현대 산업화의 시공간을 이리저리 떠돈다.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청주시, 그리고 광주광역시까지.

인천시 부평구 전남방직 1968 → 금호타운 1998. 서울시 영등포구 방림방직 1936 → 문래자이 2001. 그리고 조선직물 1932 → 조선비행기주식회사 1944 → 금성방직 1948 → 대농방직 1973. ³ 대농방직 다음은? ‘청주 지웰시티’다. 공장이 있던 자리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노동의 흔적을 깡그리 지우고 아파트를 세웠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화살표가 시간의 줄기라면, 화살표 끝의 ‘금호타운’과 ‘문래자이’와 ‘지웰시티’는 공간의 줄기다. 마지막 줄기에 자본이 흘레붙어 그야말로 자본의 꽃을 활짝 피웠다.

작가는 안양천의 지류인 수암천을 따라 뛰다가(공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빌딩이 준비하다. 수암천은 그 비좁은 사이를 흐르고 있다.) 청주시의 어느 골목을 달린다. 대농, 대농, 대농, 대농, 땀, 땀, 땀, 땀, 하면서 말이다. (주)대농은 농업, 무역업, 방직업, 비행기제작업, 제분업, 수산업, 나염업, 자동차부품업을 했고, 이제는 의류업을 하고 있다. 직물공장이 비행기랑 무슨 상관일까를 고민하지만, ⁴ 그 많은 일에 손을 댄 것을 생각하면 ‘욕망이 끝없다’고 느껴진다. 작가는 마지막 남은 산업 유산일지도 모를(?) 높다란 굴뚝을 향해 내달린다.

네이버 검색창에 ‘청주시 대농’, ‘대농 청주공장’ 등을 쳐넣고 엔터를 치니 “북대동 대농지구롯데캐슬시티”, “청주시, 대농3지구 공한지에 복합공공시설 짓는다”, “대농지구 공한지 민관복합개발”이 뜬다. (주)대농은 이미 청주를 떠나고 없다. 뒤틀린 사람들의 목마른 ‘하고품(慾)’은 그 자리에 무수한 공공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하고품’에 뒤틀려 떠난 (주)대농이나, 떠난 빈자리를 깔고 앉으려는 자본의 욕망도 매한가지로 ‘캐슬시티’를 열망하고 있었으므로.

‘디지털청주문화대전’에 대농 청주공장은 청주시의 ‘향토기업’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1955년 4월 15일 창립한 대농은 안양공장, 대구공장에 이어 청주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1970년에 착공하여 1975년 6월 완공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니, (주)대농을 ‘향토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또 다른 욕망일 뿐이다. 작가는 대농지구의 지웰시티를 동심원으로 줄이고 넓히면서 한 기업이 제 꼴과 제자리를

³ 작가의 영상 속에서 가져왔으나, 이와 관련된 자세한 기록은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https://ngoanyang.or.kr/2495>)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직물은 염색가공회사로 옷감을 위한 광복을 생산했다.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조선비행기주식회사로 바뀐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시였다. 설립자는 박흥식이다. 이후 쌍룡그룹의 창업주인 김성곤이 이곳을 사들여 금성방직을 설립했다. 그러다가 1967년에 금성방직은 대한농산(대농)에 매각된다. 이러한 산업화의 역사는 ‘한국재벌형성사’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한규, 『한국재벌형성사』(비룡출판사, 1999)를 참조할 것.

⁴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와 작가의 전언에 따르면, 직물회사가 비행기제작업으로 연결되는 까닭은 섬유로 비행기 외피를 만들어 썼기 때문이란단다.

바꾸면서 자본을 실현해 간 역사를 타고 달리다가 천변에서 멈춘다. “허,허,허…
 콩,콩,콩…끼,끼,끼…” 거리며 달려온 길이다. 그런 다음 청주시 지월시티 개발사의 다음
 프로젝트가 전남방직 일신방직(1935~)이 있던 ‘광주부지’라는 것을 넘지시 알려준다.
 머리를 한 대 두들겨 맞는 느낌이다.

작가에게 ‘소문/빌런’의 실체는 ‘자본’이다. 자본을 실현하는 욕망이다. 욕망이
 현현하는 초고층 신도시다. 자본이 자본을 집어삼키는 자본진화론의 지옥을 엿본다.
 그것은 ‘폐매’를 닮았다. 금방 하늘로 솟고, 발로는 땅 위를 걸으면서 머리는 구름에
 가려져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각건대, 끝이 없는 맨 꼭대기 그 빈자리에 “자본이
 아닌 ‘하늘사람’이 새롭게 솟아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궁금증이 벌떡 일어선다.⁵

박미라 — 이야기로 짠 검은 그물

<말 없는 땅>은 상당산성 케이크다. 그는 산성을 케이크에 빗냈다. 한 조각 케이크를
 잘라 먹듯이 땅을 꿀꺽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마어마한 그 땅은 참으로 달콤했으리라.
 얼마나 달콤했으면 은밀하게 ‘조선신탁주식회사’에 맡겨서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을까.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답게 산성의 중심에
 ‘알박기’를 했다. 민영휘의 장자인 민대식의 묘가 딱하니 자리 잡았고,⁶ 게다가 그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들까지!⁷

<말 없는 땅>은 뿌리 뽑힌 채 부유하는 땅이요, 구름에 매달아 놓은 ‘헛꼴’이라는
 걸 은유해서 보여준다. 1945년 해방이 된 뒤로 8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그
 땅은 친일파 소유의 땅이잖은가. 초자연 능력의 괴물로 그려지는 ‘파마’처럼 상당산성
 케이크도 제 모습을 잃고 녹아내리는 중이다. 촛불이 하늘을 밝히고 여러 개의 귀로
 무언가 소리를 들으려 하지만, 이미 잘려나간 케이크의 빈자리에 수많은 눈과 입이
 쌓였다. 그나마 밧줄로 동여맨 구름이 케이크를 붙잡고 있을 뿐이다. ‘소문/빌런’의
 실체는 찾아볼 수 없다.

말꼬리를 싸잡아 말을 이어가는 소문은 달콤하기 짝이 없다. 그 이야기의 몸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카더라’에 ‘카더라’를 더하고 그것을 이어서 다시 ‘카더라’로 물고
 가는 소문은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다. 누구라도 그 소문에 입을 대고 싶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미라 작가의 어떤 그림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말’을 지우고 ‘소문’을 물어 버린 ‘빌런’들이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는 종종 온갖 이야기들로 짜놓은 그물처럼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 그물의
 그물코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말 없는 땅>은 그동안 ‘말’과 ‘소문’이 없는
 땅이었다. 그 땅을 케이크로 그리면서 그는 헤어 나올 수 있는 ‘목소리’를 관객에게

5 동학은 인내천(人乃天)이라 하여 ‘사람에 하늘’이라고 하나, 글씨는 천내인(天乃人)으로 바꾸어 ‘하늘에
 사람, 그러니까 ‘하늘사람’으로 다시 본다. 인천(人天), 인신(人神)이 아니라 천인(天人)으로 보아야 뒤집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내린 자리에 하늘을 두어야 한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니까.

6 23살에 요절한 막내아들의 묘도 산성에 있다.

7 <https://www.youtube.com/watch?v=EwM8vECSqhg&t=36s>.를 참조할 것.

요청한다. 관객의 말이 ‘첫비룻’을 일으켜서 새로운 소문으로 커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친일파의 귀신과 후손들은 산성에서 떠나라!”

<검고 흰 허밍>, <돌의 미래>, <불멸의 밤>, <빈틈없는 마음>은 그가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그림/글로 그린 것들이다. 그는 그림도 수집하고 이야기도
 수집한다. 마치 채집가처럼 그림을 모으고 짧은 글을 모은다. 모은 것들로 불쏘시개
 삼아 영감을 피워 올린다. 땅을 고르고 씨를 심어 싹틔우듯이 스스로 ‘단어 조각 모음’을
 이어가면서 그려야 할 그림들을 미루어 공공(想像)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불현듯 어떤
 그림들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는 그런 그림들로 작품의 열개를 맞추고 구성한다.

그의 그림들은 마치 텅 빈 빈탕에 솟은 말의 ‘첫비룻’처럼 불쑥 솟아서 그려진다.
 그렇게 그림이 솟을 때는 생각에 생각을 이어가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말이 입에서 입을
 타고 건너가는 소문의 형식과 그의 작업의 방식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그는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 바느질처럼 꿰매져 있고 그 틈을 통해 이동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를 내내 공공하면서 문어, 해파리, 달팽이 같은 연체동물을 그리기도 했다.

소문은 늘 뒤바뀌면서 흘러 다닌다. 그의 작품들도 즉흥성, 무의식성, 유동성
 때문에 ‘뒤바뀜(變化)’이 짙게 드러난다. 소문은 계획성을 갖지 않는다. 어떤 소문은
 흥미진진해서 점점 더 커지고, 어떤 소문은 흥미를 잃고 쉽게 사그라져 버린다. 그림을
 따라가는 그의 손짓도 그렇다. 의식과 무의식의 틈에 자라는 그림과 이야기들은 검은색
 드로잉을 타고 가면서 시나브로 커가기도 하고 어이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단되고 변형된 신체, 여러 개의 구멍, 장면과
 장면을 잇는 밧줄, 차원을 통과하는 문어 다리 등의 요소는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
 차원과 차원 사이의 벽을 허물며 관람자가 마주한 화면의 세계를 무한 확장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그의 그림들은 상상의
 이야기 구조로 짠, 까마득히 감아 돌아가는 검은 그물이라 할 것이다.

오제성 — 용화수 미륵의 푸른 꿈

대한불교조계종 범주사의 말사인 청주 용화사(龍華寺). 누리집에는 ‘청주의 중심
 도량’이요, ‘천년고찰 미륵용화도량 용화사’란다. 1992년 용화사 부근에서 발굴한
 청동반자 명문에 고려 후기의 큰 사찰이었던 사뇌사(思惱寺)라고 하니 그 창건 역사가
 고려 초에서 신라 말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미륵불 7본존을 모신 70칸 규모의 사찰로
 창건되어 화랑들의 심신 단련과 군사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도량이었다고도 전한다.

‘전(傳)한다.’는 말. 몽골 침입으로 사찰은 소실되고 유물들은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여러 차례 병화(兵火)로 법당은 소실되고 미륵불은 대흥수로
 무심천에 묻혔다고 전해오고, 조선 광무 6년 3월 14일 고종의 후궁 엄비(嚴妃)가
 명하여 청주 지주 이희복이 창건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이야기들이 엄연한
 역사 속 사실이 아니라, 추정하고 전해오고 심지어 전설이라고 전한다. 그런데
 용화사의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하나는 언제 어디서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7개의 석조불상군(石造佛像群)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청주용화사석조불상군(淸州龍華寺石造佛像群)’이다. 조각의 양식과 형식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작품들은 사찰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살아남아서 ‘용화사’에 서 있다.

오재성 작가의 <용화사의 추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용화사의 역사와 전설과 석조불상군을 하나의 이야기로 꼬아야 한다. 새끼꼬기처럼 세 가닥(史, 傳, 慈氏)⁸을 한 줄로 꼬아 청동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잠자리 겹눈으로 보되 한눈을 떠서 꿰뚫고 살펴야 ‘추억’이 보일 터이다. 생각에 따라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청주 시민들의 추억일 수 있고, 달리 보면 천년의 역사를 건디면서 지금 여기에 이른 용화사와 미륵불의 지난한 추억일 수도 있다.

입으로 구르고 뒹굴다가 살아남은 말/소문처럼 석조불상군 미륵은 눈에 문히기도 하고, 개울가 옆 옛 절터에 방치되기도 했으며, 여기저기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미륵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니 제 스스로 신을 낳지도 못하고, 신이 나서 떠돌아다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전시에 설치해 놓은 작품들은 무언가 신령하고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이 무슨 조화일까? <용화사의 추억>에 ‘용화사’는 없고 오롯이 석조불상군을 빚대어 제작한 미륵과 세라믹 조각들만 서 있다. 까닭은? 고종의 후궁인 엄비가 꾸었다는 꿈! 어느 날 엄비는 낮잠을 자다가 천지가 요동하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간다. 그곳에 오색영롱한 무지개가 피어오르면서 일곱 선녀의 부축을 받고 나타난 미륵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니 큰 절을 지어 우리를 구해 달라.”고 간청한 뒤 서쪽 하늘로 사라진 것.

작가는 오색영롱한 세라믹 조각들 속에 스티로폼을 깎아 만든 미륵불을 세웠다. 세라믹 조각들은 하나하나 그 꼴이 다르다. 작은 탐처럼 생긴 그것들은 마치 사람들이 두 손 모아 비는 마음의 꼴처럼 느껴진다. 비는 마음의 꼴이니 그 꼴에 ‘바람(所望)’이 깃들여 있으리라. 평안을 바라고 안녕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들 사이에 서 있는 미륵은 미래에 오실 부처이니, 이 미륵들은 푸른 용화수(龍華樹)를 닮았다고 해야 하리라.

미륵은 용화수 아래에서 깨닫고 세 번의 설법(龍華三會)으로 9억이 넘는 중생들을 구제한다. 어쩌면 <용화사의 추억>은 과거가 아니라, 이렇듯 미래를 미리 추억하는 장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깨달은 미륵과 미륵의 설법으로 다 구제된 중생들의 풍경으로 말이다. 그러니 오색영롱한 세라믹들을 깨달은 중생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은영 — 새로 살아난 무늬들의 소문

사직동(社稷洞)은 전국에 있다. 전국 주요 도시 어디에나 사직동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사직단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유래를 살피면 “청주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에 무심천이 있고, 서쪽 개신동과의 경계에 사직산(社稷山)이

⁸ 역사(史), 전설(傳), 미륵(慈氏)을 말한다.

있다. 사직산은 고려 공민왕이 흉건적의 난을 피해 청주에 와서 머물면서 이 산에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적고 있다. 오래된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한때는 번영을 누린 도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낡은 원도심이 되었고 그래서 재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것도 2024년 뉴스에 가장 많이 뜬다.

이은영 작가는 이렇듯 재개발 이슈가 한창인 사직동을 돌아다녔다. 뉴스가 쏟아내는 ‘새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어울림’, ‘뉴타운급’, ‘초고층 아파트’ 등의 청사진에는 ‘원도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30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 전략은 먼저 깡그리 허무는 것이다. 밀고 지운 자리에 세우면서 ‘휴먼시아’, ‘그린시티’, ‘에코델타시티’를 선전한다. 그들에게 ‘사라지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작가는 사라지는 것들을 살핀다.

사직동은 빈집 천국이다. 청주시는 빈집을 정비하여 임시 무료주차장으로 쓰니 ‘주민호응’이 높다고 떠든다. 그런데 한 블로거는 ⁹ “빈집 담벼락에 흘러내린 녹물이 세월이 스러진 철제의 눈물처럼 느껴진다.”면서 “황량한 골목길에 길 잃은 뗏목물이 흐르는 고양이들이 골목의 주인인 양 돌아다닌다. 멀지 않아 이곳은 사라지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겠지만, 사직동 골목길들에서 주고받았던 정들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썼다.

작가는 그렇게 ‘흘러내린 녹물’, ‘스러진 철제의 눈물’, ‘뗏목물 골목’, ‘돌아오지 못할 정’ 같은 것들을 주워 모았다. 그가 전시에 내놓은 <소문의 얼굴>과 <꺾어진 나뭇가지에 복사꽃이 피었다>의 작품들은 사실 조각이나 어떤 형상들이 아니라, ‘세월’이요, ‘흘러내림’이요, ‘황량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도조에 혼합재료로 창살 무늬와 담벼락과 열룩과 타일과 꽃문양, 담쟁이 등을 만들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살림집’으로 살았을 때의 싱싱한 정서들이었다. 방법창살 하나도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들이니 그 무늬 하나하나가 ‘사랑’의 무늬가 아닌가.

사람이 떠난 빈집들은 모두 말의 무덤들이다. 그곳에서 소문의 흔적을 찾는 것은 길 잃은 고양이들이 모두 제 주인을 찾은 격이다. 이제 창문에 덧댄 방법창살들은 대부분 녹이 슬어서 험겁다. 그 어떤 말들도 이 창살에 걸리지 않는다. 소문이 없으니 집에 더부살이했던 무늬들도 부서지고 흩어진다. 작가는 그렇게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들을 살려냈다. 우민아트센터에는 새로 살아난 창살들과 벽무늬들이 붙어서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펼치고 있었다.

사직단은 본디 땅의 신인 사(社), 곡물의 신인 직(稷)에게 제례를 올리는 단(壇)이다. 사직단이 있었던 사직동은 하늘땅이 하나로 이어지는 땅이다. <소문의 얼굴>이 그 자리에 새로운 무늬로 일어서는 마음들이라면, <꺾어진 나뭇가지에 복사꽃이 피었다>는 설령 뉴타운이 들어설지라도 사람들이 깃들어서 살아가는 세상일 터이니 ‘복사꽃’ 피우는 세상이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야만 다시 소문은 시작될 터이고, 그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지 않겠는가.

⁹ <https://blog.naver.com/wasc11/222710675380>(2024.6.17 시점)

정정호 — 미륵의 현신(現身), 용의 실체를 찾다

뒹굴다가 살아남은 말이 스스로 신을 낳기도 할까? 과연 신이 나서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말의 '첫비룻'에 깃들여 있는 신령하고 기묘한 힘은 무엇일까? 이 평론의 말머리에 미리 써놓은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으로 바꾼 까닭은, 그 말들이 정정호 작가의 사진들에서 비롯된 바 크기 때문이다.

전시장에 들어서서 처음 그의 사진들과 마주했을 때 글쓰이는 '무늬'보다는 '(물)비늘'에 가까운 미끌거림을 느꼈다. 약간의 물비린내도 느꼈던 것 같다. 긴 벽을 따라 등성등성 위아래로 붙여놓은 사진들은 작품이 아니라, 흰 벽을 뚫고 현실 너머의 풍경을 보여주는 창문 같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갇힌 프레임을 열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실감하게 하는 '실체적 환(幻)'이었던 이야기다.

어떤 말들은 소문을 싸잡아 누른 뒤에 스스로 산숨(生命)을 얻어서 동지를 튼다. 그 말들은 입을 타고 다니지 않는다. 깃바퀴로 휘몰아쳐 들어가 머릿골에 계시는 신을 불러낸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용의 터들은 감흥신령(感興神靈)이 깊게 내려앉은 곳이기도 하다. 남한강의 발원지 검룡소가 그렇고,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그렇다. 두물머리 두물경은 신을 내고 낳는 영험한 자리다.

작가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용터'를 찾아 나섰는데, 그 자리들은 모두 소문을 누르고 동지를 튼 곳이었다. 소문의 힘보다 장소의 드러난 형상과 그 형상들이 뿜어내는 상서로운 기운과 땅들을 타고 흐르는 밤낮의 그림자들이 더 드셨기 때문이다. 용암동은 우암산, 망산, 상당산성, 선도산, 선두산이 학익진으로 보듬고 있는 지역이다. 흥미롭게도 이 지역을 검색하면 "해장국 맛집 '뼈의 전설'"이 뜬다. 뼈의 전설이라니, 실제로 작가가 찾은 두루봉 동굴은 뼈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다.

그는 큰 용굴과 작은 용굴, 용바위, 구룡사, 용담 등을 비롯한 용의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전설들의 흔적들과 마주했다. 전하는 이야기는 때때로 미끌거리며 흘러내렸으나, 그가 카메라 속 펜타프리즘으로 잡아챈 장면들은 이야기를 끌고 우물 깊은 곳까지 넘어갔다. 그곳은 현실이면서 비현실이었고 초현실이었다. 이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신화는 신화의 껍질을 벗고 투명하게 살아서 존재했다.

일연은 『삼국유사』 『기이(紀異)』에 적기를 "옛 성인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 부명 10에 응하거나 도록 11을 받아, 반드시 범인과 다름이 있는 연후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 12를 잡고,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했다. 괴력난신은 괴이(怪異), 용력(勇力), 패란(悖亂), 귀신(鬼神)을 말한다.

정정호 작가는 괴력난신의 실체를 더듬어 왔다. 예술이 본디 가졌던 실체는

10 하늘이 군주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도록은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기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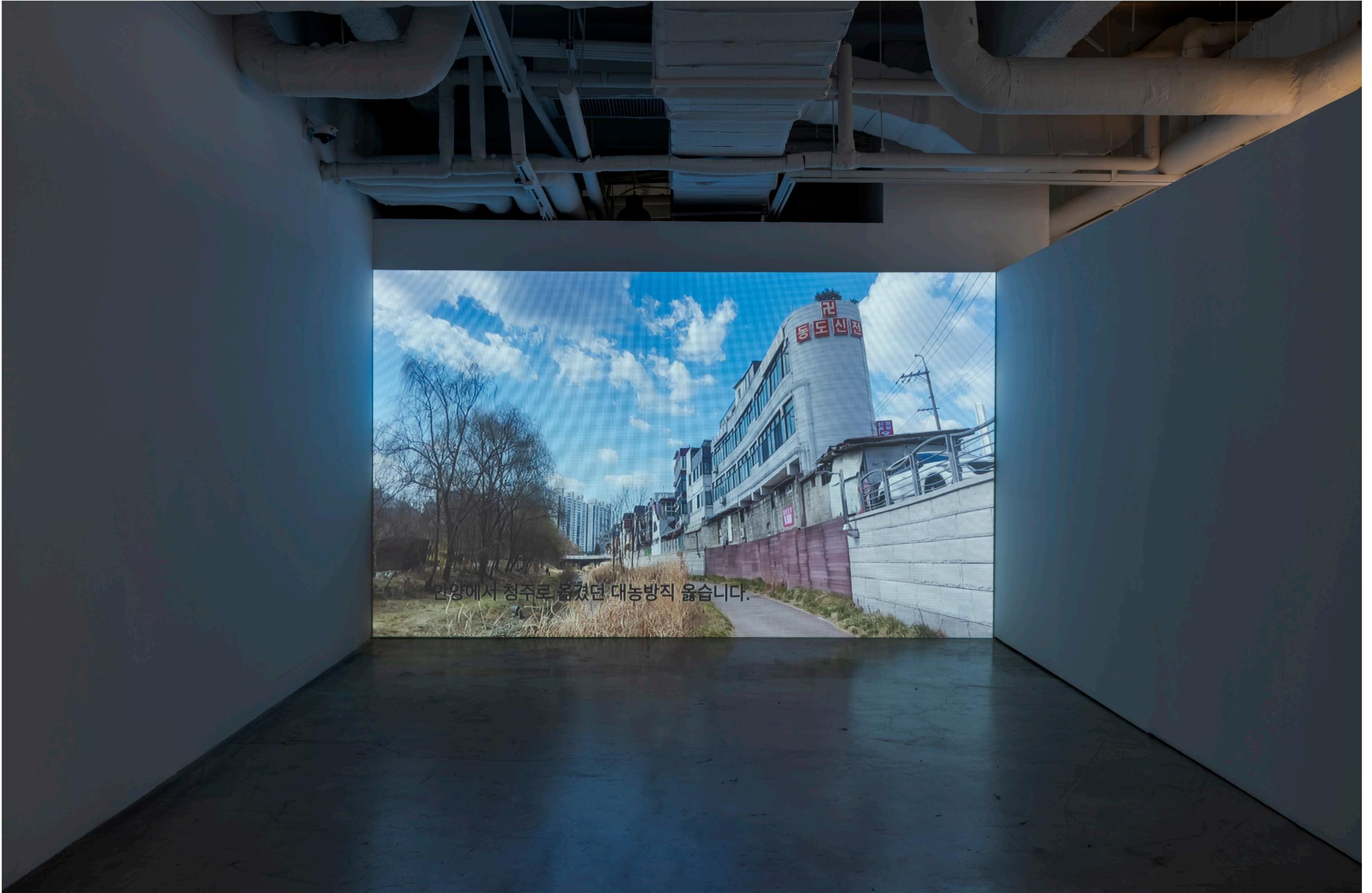
12 뛰어난 인제, 권력, 국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천자(天子)를 뜻한다.

'창조적 술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용(龍)'의 지명이 그토록 많은 까닭은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고 대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용바위>의 전설이 그러하고, <구룡산의 비밀>이 그러하고, <구멍>의 진실이 또한 그러하다. 그는 심지어 <북어 대가리>의 말라비틀어진 비늘에서도 '용'의 자취를 보았다. 사람들은 늘 용을 찾는다. 우리는 용을 '미르'라 하는데, 그 미르가 곧 미륵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그의 작품들은 마고미륵 13의 현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할 것이다.

1976년부터 83년까지 석회석 광산 채굴로 10여개의 동굴이 사라졌다고 한다. 2024년 현재도 청주시는 동굴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마을의 흔적, 사람의 흔적, 신화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시간들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새로운 도시의 이야기가 자라겠지만, 과거가 없는 도시는 '빌런'들의 도시일지 모른다. 자기 역사를 갖지 못한 도시는 껍데기만 난무할 테니까. 공자는 괴력난신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람들이 사는 땅에 괴력난신이 없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말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사람의 말을 짓고 일으켜서 흐르게 해야 한다. 살아남은 말들이 신을 낳도록 해야 한다. 신이 나서 떠돌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하늘'로 솟구칠 수 있으리라.

13 마고(麻姑) 아주 오래된 옛 신화 속 여신이다. 미륵의 본성은 '여성성'에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정정호 작가는 그 둘의 현신을 친견하려는 의지로 가득해 보인다. 마고와 미륵을 둘이 아닌, '마고미륵'이라는 한 몸으로 본다고 할까.

김재민이
Gemini Kim



만나기만 만날진대 너도성공 나도성공 2024, 단채널 영상, 7'00



스타벅스에 왜 집착하나고?





안양에서 청주로 옮겼던 대농방직 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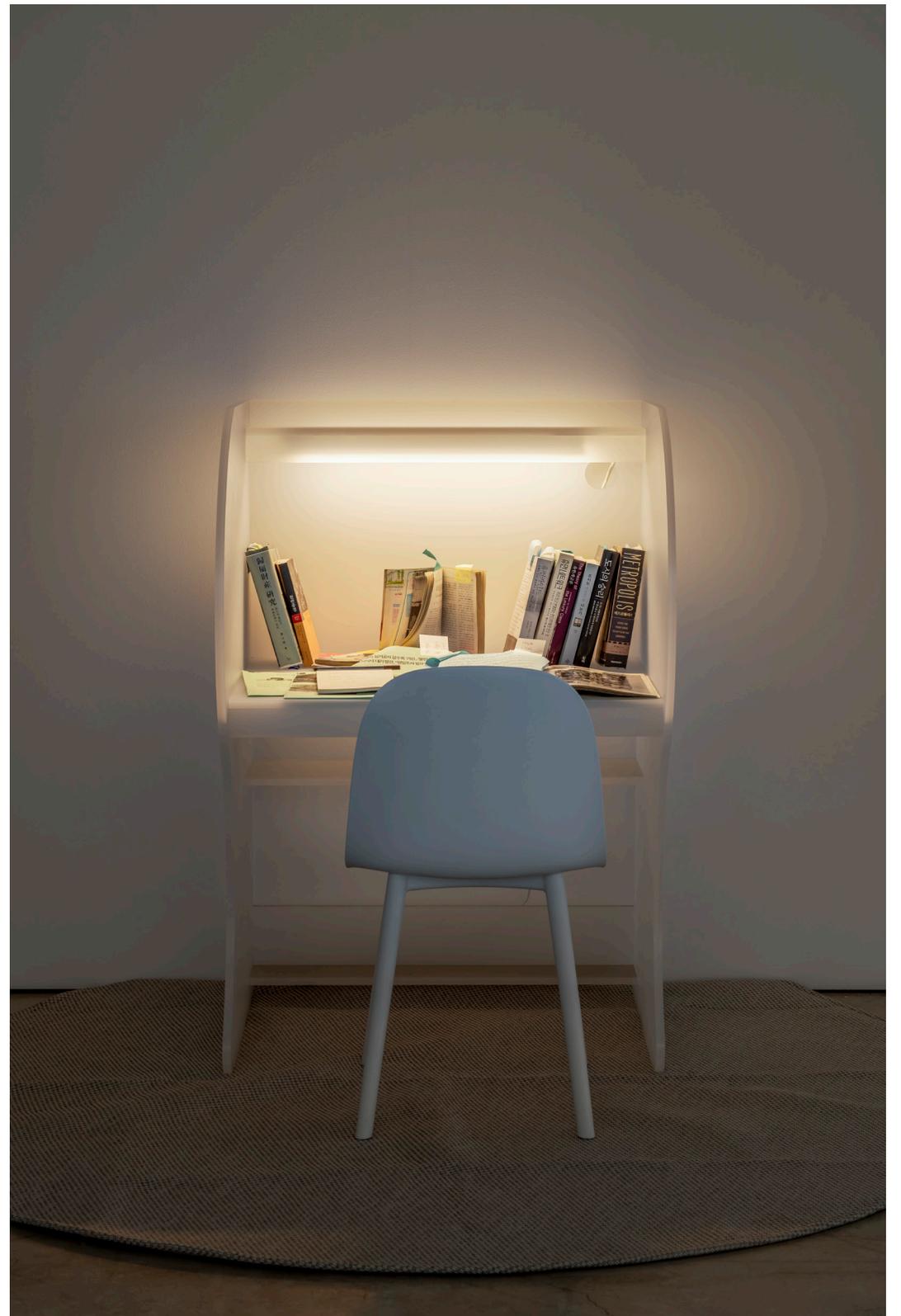
허,허,허,허,허,허,허,허,공,공,공,공,공,공,공,공,



큰 공장은 천을 끼고 있기 마련이요,



스타벅스에 왜 집착하냐고?



만나기만 만날진대 너도성공 나도성공 2024, 아카이브 설치물, 80×60×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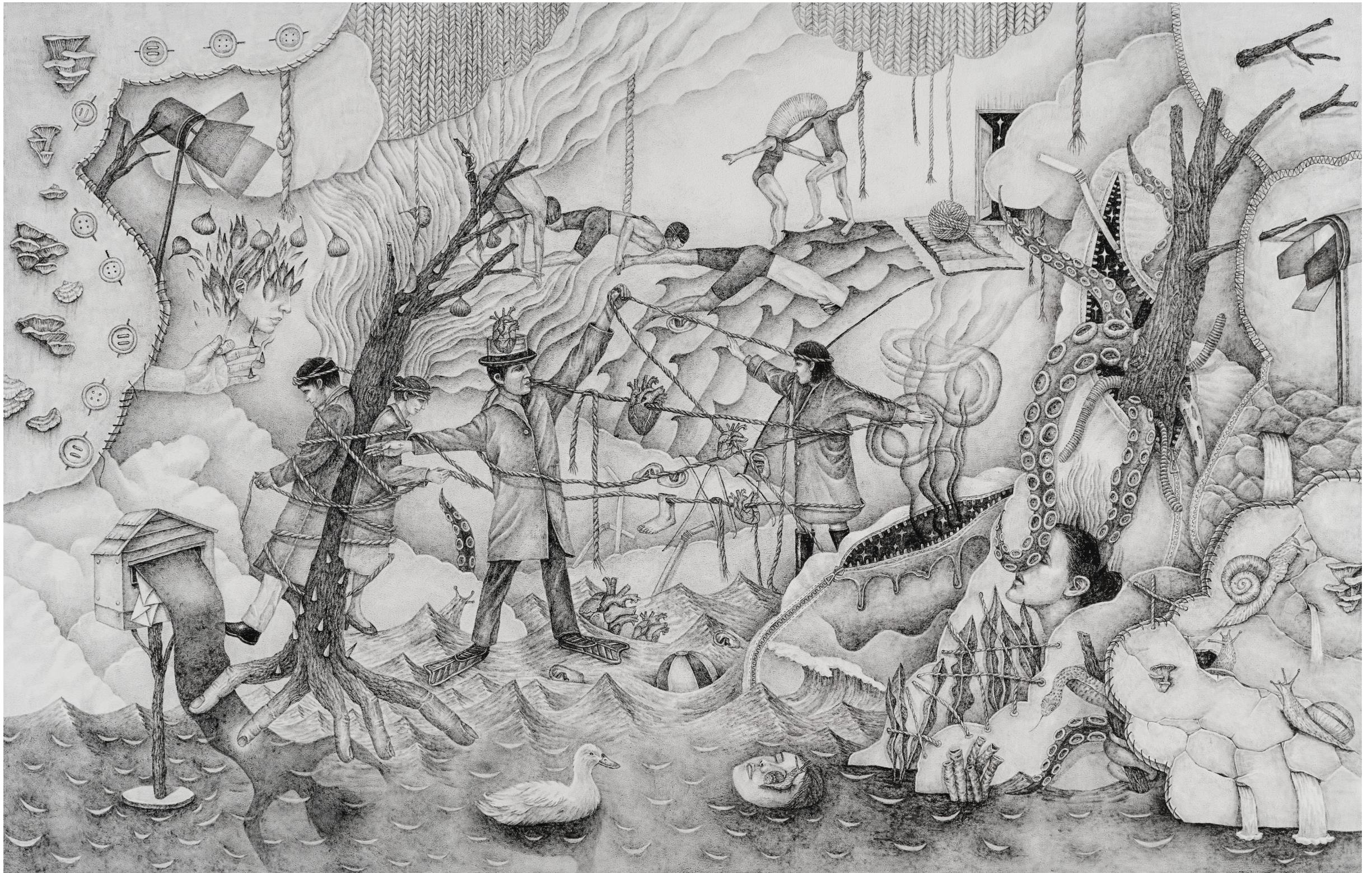
박미라

Mira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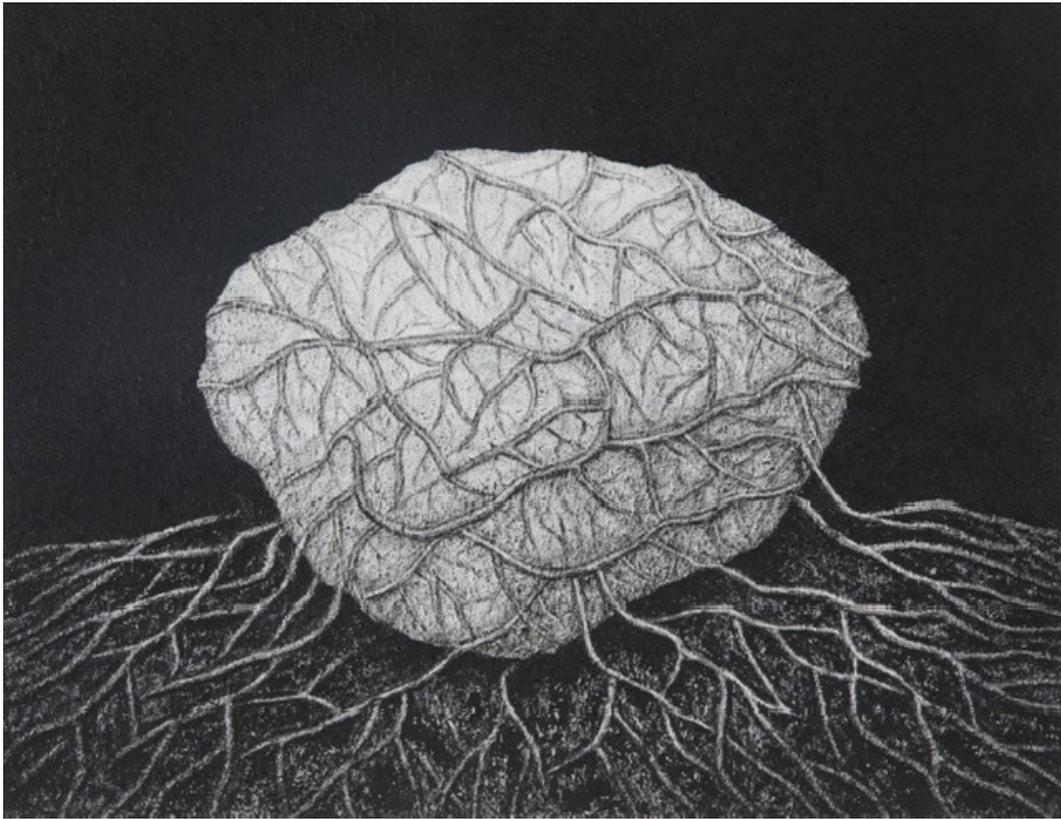




말없는 땅 2024, 캔버스에 아크릴릭, 145.5×227.3cm



빈틈 없는 마음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145.5×227.3cm



불멸의 밤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41×53cm



돌의 미래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41×5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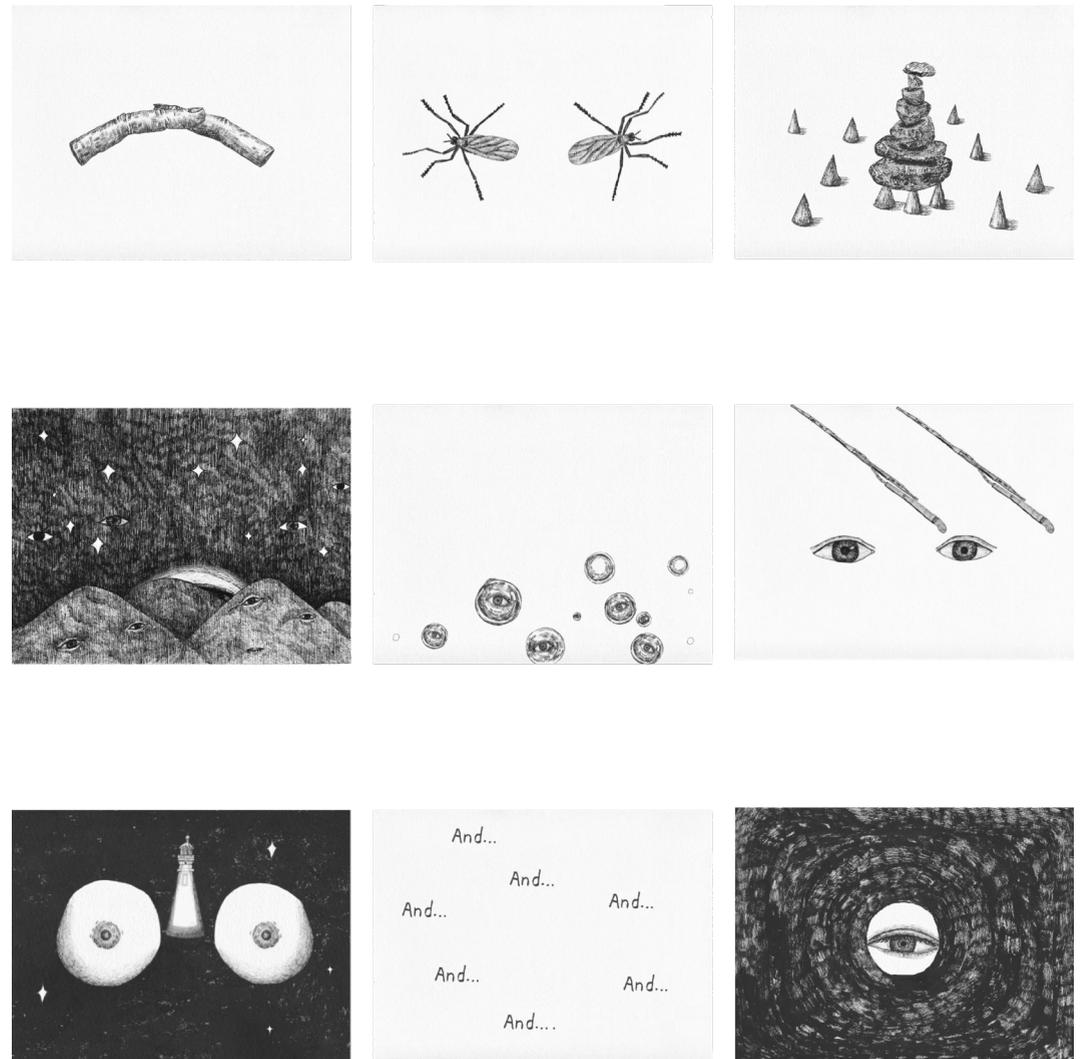
검고 흰 허밍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53cm (7)



(영상 위치: 위) 사랑, 새출발, 구매, 희망 2022-2023,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영상 위치: 중간) 눈 내리는 밤, 눈방울, 눈치, 장마 2022-2023,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영상 위치: 아래) 마음잡이, 소망, 텔레파시, 핑퐁 2022-2023, 드로잉 애니메이션, 반복 재생



오제성
Jeisung Oh



영화사의 추억 2024, 세라믹, P.L.A, 스티로폼, 발포우레탄폼, 방수페인트, 가변크기,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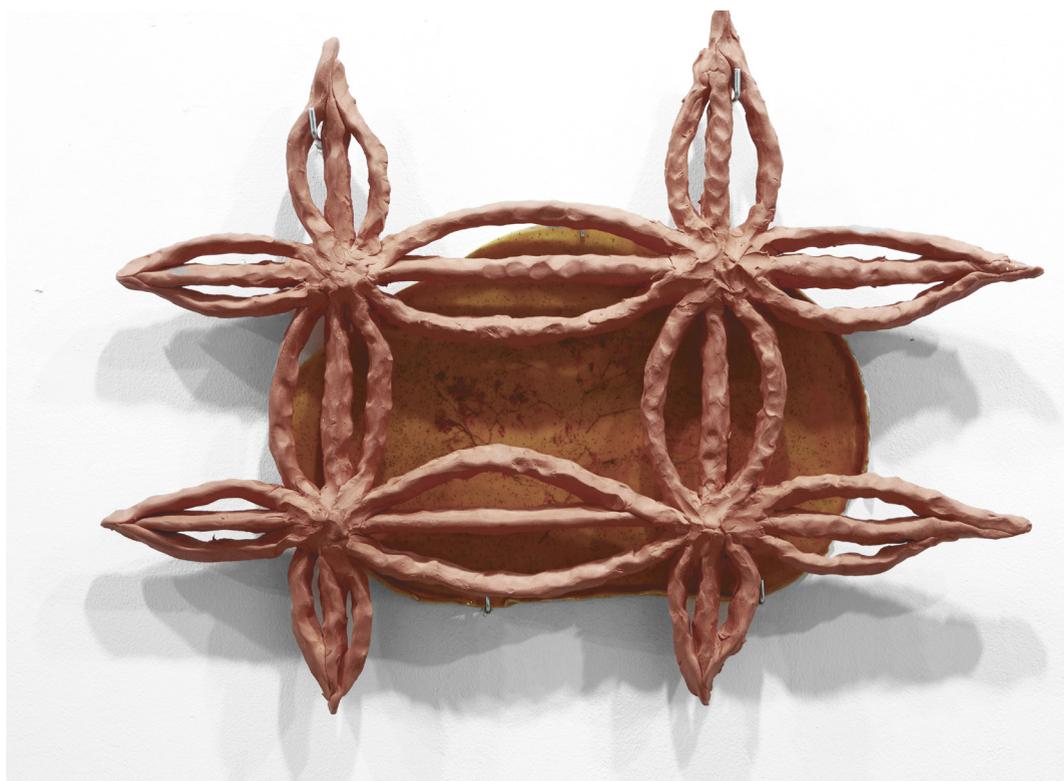


이은영
Eun Yeo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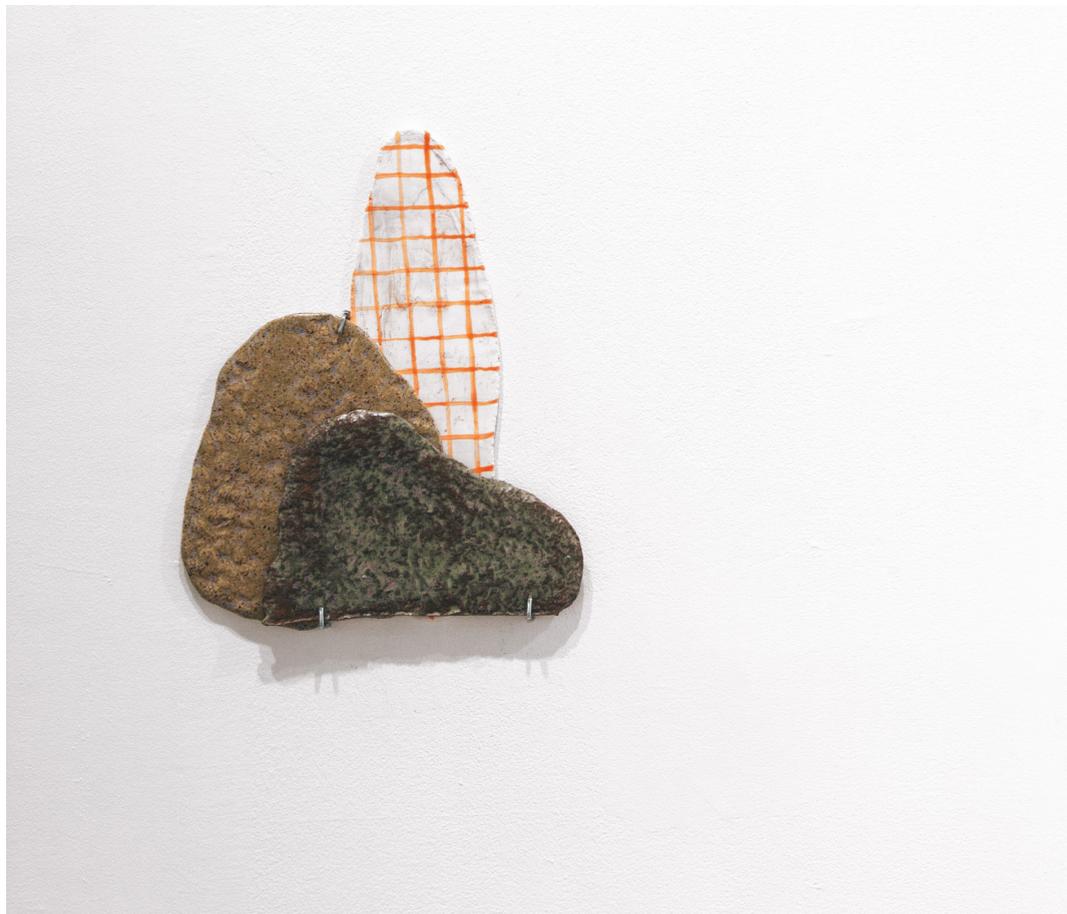
소문의 얼굴 2024, 도자 및 혼합재료, 가변크기,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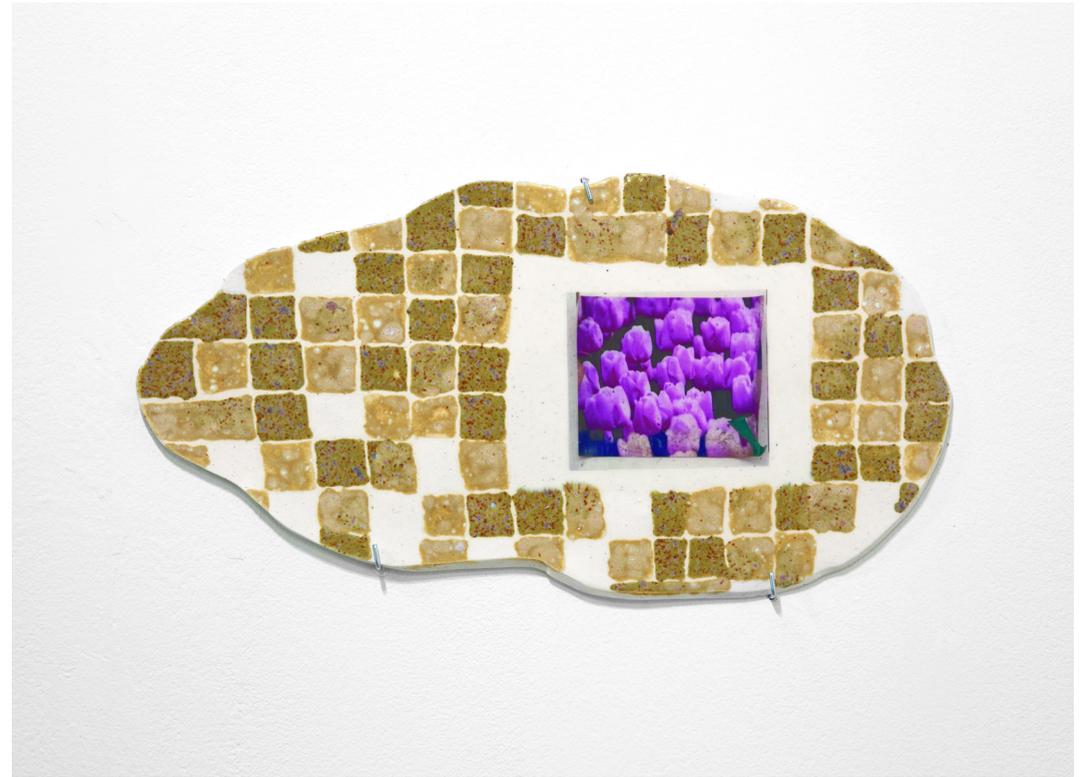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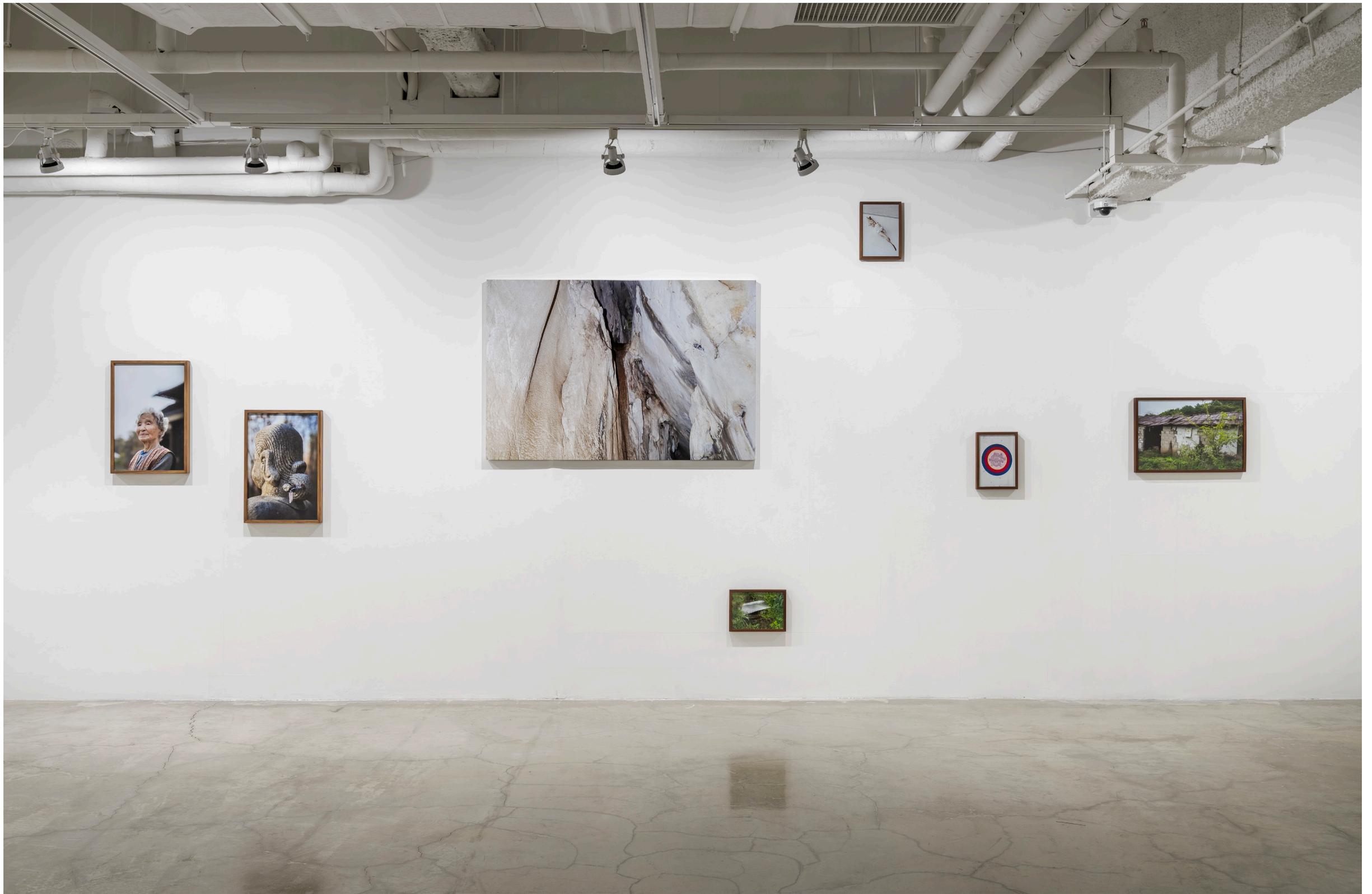
꺾어진 나뭇가지에서 복사꽃이 피었다 2024, 도자 및 혼합재료, 가변크기, 가변설치





정정호
Jungho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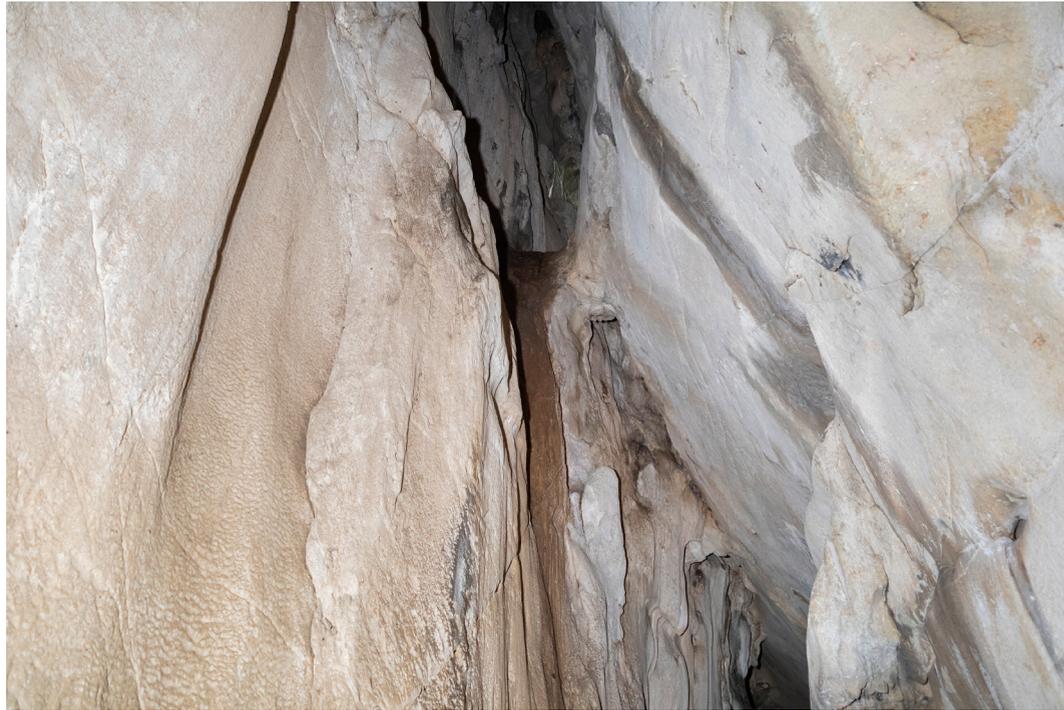
구룡산의 비밀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0×60cm



동굴탐험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30×20cm



용이 살던 굴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150cm



구멍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00×150cm



복어 대가리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30×20cm



구름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30cm



기우제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90×60cm



표식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0×60cm



우물 덮개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30cm



저기가 바로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30×20cm



구룡사 지운스님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0×60cm



믿음의 문제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40×60cm

2024 주제기획

소문과

김재민이

박미라

오제성

이은영

정정호

빌런의 밤

2024.5.2.-6.29. 우민아트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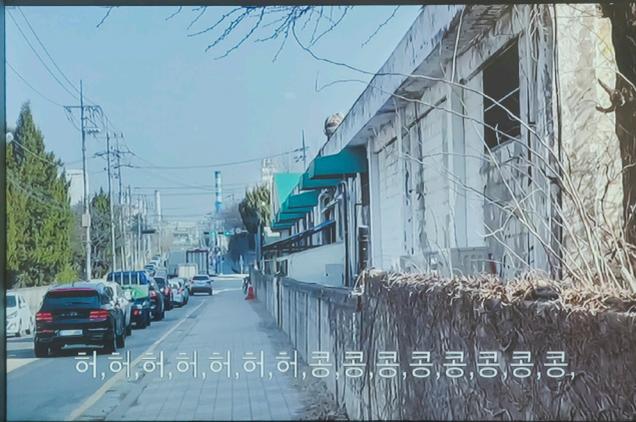












허,허,허,허,허,허,허,콩콩콩콩콩콩콩.





선박회사에서 하던 일을 그만둔 후에 영국에서 시각 예술 교육을 받았다. 커뮤니티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 인천에서 시작해 도시 연구와 예술을 수행하면서 반경을 넓히고 있다. 전쟁 전후의 변화와 군사 문화를 토대로 한 아시아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거대담론에 반하는 개인적 활동(농작물 가꾸기, 동네 청소 등)의 체험을 전쟁의 역사가 얽힌 나라의 예술인과 협력하고 직조하는 작업을 만든다. 2020년부터 배출된 '유해 업소'를 뒤집어쓴 도시 번두리를 리서치하고 있다.

학력

2009 첼시예술대학(원) 순수미술

개인전

- 2023 《서울의 4대 명약》, 챔버1965, 서울
- 2022 《Invisible Factories 공장달리기 하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22 《공장달리기: 용산, 영등포, 인천》, 쉬(shhh), 인천
- 2020 《The Art of Luxurious Living》, Tentacles Gallery, 방콕
- 2018 《사슴은 뭘 먹고 사나요?》, 경기도미술관, 안산

주요 그룹전

- 2024 《소문과 빌런의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 2024 《이것은 부산이 아니다: 전술적 실천》,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2023 《DIALOGUE: Mind Map》, 플랜트란스 성수, 서울
- 2023 《걷기, 해매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 2022 《실현되지 않는 연극》,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 2022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 사전프로그램 《이례적인 시간, 불확실한 움직임》, 서울시립 서소문본관, 서울
- 2022 《투유: 당신의 방향》,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21 《월간인미공-접힌 경계: 안과 밖》, 인사미술공간, 서울

커미션 프로젝트

- 2023 《Study: Osaka Kanasai Interntional Art Festival》, 오사카, 일본
- 2022 《도시 상상을 위한 걷기, 송도 데리브 워크》 기획, 연수문화재단
- 2021 《Invisible Factories》, 아트 마에바시, 군마, 일본

레지던시

- 2023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22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20 텐타클스, 방콕, 태국
- 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아트 마에바시, 마에바시, 일본
- 2019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감정을 관찰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요인들로 형성되었는지 찾아보고 기록한다. 대부분 감정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여기지만 감정이 사회의 맥락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부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식과 무의식의 틈에 자라나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주로 검은색의 재료를 사용해 새겨나간다. 일상과 가상의 경계에서 불편하고 어긋난 상황을 연출하고, 화면 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서사구조를 탐구하고 있다. 공간과 공간, 이야기와 이야기, 의식과 무의식, 가상과 실제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며 드로잉 애니메이션, 설치, 회화 등의 매체로 보여준다.

학력
2006 가천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2023 《개구리의 눈》,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3 《페어링》, SeMA 창고, 서울
2022 《막간극》, 아트스페이스 보안 2, 서울
2020 《검은 산책》, 에이라운지, 서울
2019 《밤물결》,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주요 그룹전
2024 《소문과 빌런의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2023 《숫 사이》, 갤러리 인 HQ, 서울
2023 《불편한 미술관: 우리는 그들에게》, 소다미술관, 화성
2023 《중심의 전환》, 토탈미술관, 서울
2022 《Mapping Memory: The Bunker》, SeMA 병커, 서울
2022 《만화-경》, 에이라운지, 서울
2022 《비 현실의 하이퍼 리얼리즘: Over and Above》, 두남재아트센터, 서울

수상 및 선정
2023 신진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23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작가 선정, 종근당 홀딩스
2022 예술작품지원사업 시각예술 부문 선정, 서울문화재단
2021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시
2024 푸른시대창작센터, 수원
2023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9-2021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안산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청년예술청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설화와 전설을 영상, 설치, 조각으로 만든다. 도시 거주자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주, 입주, 임대와 같은 경험의 서사를 성주신과 같은 설화에 빚댄 이야기를 만드는가 하면, 자신의 작업실 주변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너무 당연해져 버린 서울의 억지스러운 도시개발 역사, 젠트리피케이션, 거주민과 이주민의 서사를 영상으로 담아낸다. 동양문화의 원형을 찾고자 전국 각지의 사찰, 기도 터를 답사하고 작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학력
2019 국민대학교 미술학과 입체미술 전공 석사 졸업
2016 OTIS College of Art & Design Fine Art 석사 졸업
2012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입체미술 전공 졸업

개인전
2024 《Ghost Protocol》, 금호미술관, 서울
2023 《The Motion Sculpture》, 전시공간, 서울
2023 《Joyful Sculpture》, The Square, 서울
2023 《Playful Sculpture》, space xx, 서울
2022 《Influence》, EMA/Le Phare, 벨기에
2020 《Index》, 누루미술관, 밀양
2019 《The Motion Lines》, 송은아트큐브, 서울

그룹전
2024 《소문과 빌런의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2023 《조각모음》, 문래예술공장 갤러리M30, 서울
2023 《더비 매치: 감시자와 스파이》, 뮤지엄헤드, 서울
2023 《Hybrid-Ground》, 자하미술관, 서울
2023 《FOUNTAIN PUNCH》, NEVERMIND, 서울
2023 《대발생》, 은평문화회관, 서울
2022 《사진의 조각》, 연주라운드, 서울
2022 《김복진과 한국 근현대 조각가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22 《귀환불능지점》, 신한갤러리, 서울

2022 《조각총동》,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캠퍼스 신축교사 갤러리, 서울
2022 《페이지 너머》, 대전창작센터, 대전
2021 《태양에 대한 승리》, 옥상팩토리, 서울
2021 《반투명한 세계-Drag and Drop》, SAGA, 서울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도자미술관, 이천
2021 《SYSTEM CONTAINER》, 가삼로지움, 서울
2020 《클레이아크세라믹 창작센터 입주작가 보고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2020 《오래된 미래: 조우》, 스페이스 사랑농장, 김해
2020 《가소성전: Plastic Ruins》, 을지로 OF, 서울
2019 《도봉구 도봉동 7-4》, 평화문화진지, 서울
2019 《Summer Love》,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9 《Another 나쁜 세카이(어나더 나쁜 세카이)》, 스페이스22 익선, 서울
2018 《PENNY LOAFERS》, COMFORT MENTAL, 파리, 프랑스
2018 《투명함을 달는 일과 어두움을 여는 일》, 조원로25 강남아파트 18동, 서울
2016 《Now What?》, Bolscky Gallery, LA, 미국
2015 《Snap to Grid》, Los Angeles Center for Digital Art, LA, 미국
2014 《운동×운동》, 문화아카이브 봄, 서울

레지던시
2022-2023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새들, 고양
2022 Ceramic Art Andenne, Andenne, 벨기에
2021 K'ARTS 창작스튜디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202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 김해
2017 Les Ateliers des Arques, Les Arques, 프랑스

이은영 1982년생

다양한 단어와 심상을 결합하여 조형 시를 만든다. 그의 작업은 잊혀지거나 희미한 기억으로 남겨진 대상으로부터 시작된다. 또렷이 형상화되지 못한 대상들에 얽혀 있는 감각과 기억의 파편들을 끌어올리고 드러내는, 그림으로써 나타나는 시각적으로 재구성된 서사의 다양한 의미를 탐색한다.

학력

- 2013 스위스 제네바고등미술원(HEAD) CERCCO 석사 졸업
- 2010 프랑스 니스국립고등미술원(Villa Arson) 학사(DNAP), 석사(DNSEP) 졸업
- 2009 독일 라이프치히미술원(HGB) ERASMUS 프로그램
- 2005 영남대학교 조형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 2023 《4시와 6시 사이의 ○○》, 서울대학교 우석갤러리, 서울
- 2023 《먼지》, 봄화랑, 서울
- 2021 《미모사》, 봄화랑, 서울
- 2019 《밤을 달여 놓아두었다》, 아마도예술공간, 서울
- 2018 《빛으로 세운 목소리》,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17 《아드로게의 정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 2016 《멀리 있는 산이 가까이 보이면 비가 온다》, OCI 미술관, 서울
- 2015 《Rêve de poils d'animal_p253》, La salle Croisnier, Palais d'athénée, 제네바, 스위스
- 2015 《검은 털 짐승에 관한 꿈_p261》, 예술지구 P, 부산
- 2014 《나의 멋진 2014년 운세》, Milkshake Agency, 제네바, 스위스

주요 그룹전

- 2024 《소문과 빌런의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 2024 《언박싱 프로젝트 3:마케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 2023 《제23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 서울
- 2023 《Teaser II : Mise en Scenes》, FMAC, 제네바, 스위스
- 2023 《돌도둑/이야기/그림/책》, 봄화랑, 서울
- 2022 《소소하지 않은 일상》,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22 《길 위에서》, 5.18 기념관, 광주
- 2021 《뷰자데 Vuja De》, 보안 1942, 서울
- 2021 《불온한 신체》, 화인페이퍼갤러리, 서울
- 2021 《전남수목비엔날레-일즉다 다즉일》,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목포
- 2020 《16개의 기둥-지붕 없는 갤러리 PS333》,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20 《Willi Woo》, Espace EEEEEH, 니옹, 스위스.
- 2020 《난반사》, 적정거리유지, 서울
- 2019 《이 전시는 교훈이 없다》, 현대미술회관, 부산
- 2019 《부산비엔날레 2019 바다미술제 - 상심의 바다》, 다대포 해수욕장, 부산
- 2019 《Fantasy Glory》,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9 《시간의 틈새》,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서울
- 2018 《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빛 2018》,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 광주
- 2017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1999-2017: 인식적 지도 그리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7 《POINT QUARTZ Flower of Kent》, Villa Arson 국립미술센터, 니스, 프랑스
- 2017 《Big》, Plain palais, 제네바, 스위스
- 2017 《INTRO》,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 2017 《L'achive du feu》, live in your HEAD, 제네바, 스위스
- 2016 《RELOAD-다시 장전하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 2016 《은유적 관계》,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 2016 《24회 발로리스 국제 현대미술도자 비엔날레》, 발로리스, 프랑스
- 2016 《죽흥과 숙성》, 흥티아트센터, 부산
- 2016 《팔자전》, 예술지구 P, 부산
- 2015 《젊은시각 새로운 시선》,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5 《Geneva Lux》, Jardin Anglais, 제네바, 스위스
- 2015 《Inter Mezzo》, Le Salon Vert, 제네바, 스위스
- 2015 《Vivid dream》,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 2014 《Le Manoir 1964 - 2014 50 ans d'expositions》, Le Manoir, 마르티니, 스위스
- 2014 《Entre chien et loup》, Villa Bernasconi, 제네바, 스위스
- 2013 《Berthoud, Lissignol-Chevalier et Galland》, 제네바 현대미술재단(FMAC), 현대미술센터, 제네바, 스위스
- 2013 《De l'Inachevé》, Hall CFF, 로잔, 스위스
- 2013 《Shipping Paradise》, 씨데 인터네셔널 데 자르, 파리, 프랑스
- 2013 《Extended Body》, La villa Dutoit, 제네바, 스위스
- 2012 《57회 살롱 드 몽후주》, Le Beffroi, 몽후주, 프랑스
- 2011 《Zeste d'orange, dans son indignation cyan》, La galerie de la Marine, 니스, 프랑스
- 2011 《발로리스와 꼬뜨다쥐르 현대도자 60주년 기념전》, 마넬리미술관, 발로리스, 프랑스
- 2011 《Le Noir》, M.D.A.Cagnes, 칸느, 프랑스
- 2010 《Cette année là》, La galerie de la Marine + Villa Arson, 니스, 프랑스
- 2010 《Dis moi ce que tu manges》, La Cambre, 브뤼셀, 벨기에
- 2010 《Draw me yours dreams and your nightmares》, M.D.A.Cagnes, 칸느, 프랑스

레지던시

- 2020 금천예술공장, 서울
- 2019 Art Mia Foundation, 홍콩
- 2018 한국예술종합학교 K'ARTS Studio, 서울
- 2017 Fonderie Darling 레지던시, 몬트리올, 캐나다
- 2017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 2015-2016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라믹창작센터, 김해

- 2014 예술지구 P 레지던시, 부산
- 2013 부르크너 세라믹 레지던시, 제네바, 스위스
- 2013 씨데 인터네셔널 데 자르, 파리, 프랑스
- 2011 Atelier SPADA / 니스 시립 레지던시, 니스, 프랑스

수상 및 선정

- 2018 제18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 《빛2018》展 작가 선정, 광주시립미술관
- 2018 Art Mia Foundation 동아시아 동시대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 선정, 아트미아 재단, 중국
- 20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분야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5, 2016 OCI YOUNG CREATIVE 선정, OCI미술관
- 2015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부산문화재단
- 2015 P-Art Award, 예술지구 P
- 2014 Société des Arts 젊은 작가 지원, 스위스
- 2013 리씨볼 슈발리에 갈랑드 장학금, 제네바시립현대미술협회(FMAC), 스위스
- 2013 부르크너 재단 장학금, 스위스
- 2010 니스시 La jeune creation상 수상, 프랑스
- 2009 장학금 O.F.A.J (Office Franco-allemand pour la Jeunesse)

정정호 1981년생

정정호는 저널리즘과 사진을 공부했다. 자연이 가진 미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숨은 미묘한 에너지를 포착하고, 생의 흐름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또한, 지역의 개발이나 변화로 인해 드러나는 도시의 민낯과 구조를 아카이브 사진의 형태로 제시한다. 최근에는 지역의 숨은 설화나 민속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믿음이 현재 사회에 어떻게 드러나고 작동하는지 사진, 영상,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한다.

학력

2013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석사 졸업
2009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개인전

2022 《매그놀리아》, BMW 포토스페이스, 부산
2022 《부처와 마고할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0 《Beside》, 라이카 스토어 청담, 서울
2019 《Leica×정정호 '쿠바'》,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서울
2019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류가현, 서울
2016 《Architype 7017》,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5 《Fragment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시드니, 호주
2015 《백의 발화》, 류가현, 서울
외 다수

주요 그룹전

2024 《소문과 빌런의 밤》, 우민아트센터, 청주
2024 《공존》, 미텔라인 미술관, 코블렌츠, 독일
2023 《당신에게 말을 거는 이유》,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23 《물의 왕: 동학과 화염의 두물머리》, 자하미술관, 서울
2023 《매혹적 우아함》, 쿤스틀러하우스 솔로스 발모랄, 바트엠스, 독일

2023 《충돌: 포르쉐와 덤프트럭》, 아트플러그 연수, 인천
2022 《것들, 흔적 기억》,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청주
2022 《숨은 그림 찾기》, 경기상상캠퍼스 디자인1978, 수원
2022 《정착세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2 《Match Box Editon 1. 2인조 X》, 아트플러그 연수, 인천
2021 경기시각예술발표전 생생화화 《현시적 전경》, 단원미술관, 안산
2021 《보존과학자 C의 하루》,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21 KT&G SKOPF 신소장품전 《PIC》, KT&G 상상마당, 서울
2021 《낮선 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 이야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21 《미안마의 봄》, 스페이스사랑농장, 부산
2020 《선감비닐하우스》, 대부선감 어촌계, 안산
2020 《작가노트》, 경기창작센터, 안산
2020 《보존과학자 C의 하루》,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2019 《KT&G SKOPF 올해의 작가전》,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9 《포토런던》, 서머셋 하우스, 런던, 영국
2019 《SeMA 신소장품 멀티 액세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
2018 《통합 불가능한 개별적 개체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8 《뉴 컬렉션》, 류가현, 서울
2018 《적막한 고요와 짙은 해무 사이》,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8 《공인되지 않은 담론자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7 《레시피》, 예술지구_P, 부산
2017 《Current》, Counihan Gallery, 시드니, 호주
2016 《세계문자심포지아 2016 : 행랑》, 익선동 일대, 서울
2016 《낙원의 고수》, 낙원상가, 서울
2015 《Current》, 머레이 아트 뮤지엄 앨버리, NSW, 호주

2015 《FOTOFEST Mapping Territories》, NRG Center, 휴스턴, 미국
2015 《루나포토 페스티벌》, 덕수궁 함녕전, 서울
2015 《장님 코끼리 만지듯》, 지금여기, 서울
2015 《FOTOFEST: International Discoveries V》, 실버스트리트 스튜디오, 휴스턴, 미국
2014 《Assemble The Five Sense of Dream》, 이란예술위원회, 테헤란, 이란

수상 및 선정

2023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2022 전시 프로젝트 지원,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2022 BMW FOTO FUTURE, BMW Photo Space
2022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 경기도 예술진흥 시각예술 지원프로그램 기금 수혜, 경기문화재단
2020 아트 체인지업 기금 수혜, 경기문화재단
2020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시각예술 분야 기금 수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국립현대미술관 커미션워크, 국립현대미술관
2019 라이카 카메라 글로벌 캠페이너 선정, 라이카 카메라
2018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와 기획공모사업 선정, 서울특별시
2018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SKOPF 올해의 작가 선정, KT&G 상상마당
2016 갤러리 정미소 전시지원 작가 선정, 갤러리 정미소
2015 FOTOFEST International Discoveries V 선정, FOTOFEST

레지던시

2024 금천예술공장, 서울
2023 쿤스틀러하우스 솔로스 발모랄, 바트엠스, 독일
2023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22 아트플러그 연수, 인천

2021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8-2020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5 보공 센터 포 사운드 컬처, NSW, 호주
2014 아르코 노마디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란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청 박물관과
고은사진미술관
KT&G 상상마당
라이카 카메라 코리아
JTBC
ANANTI
호주사진센터
보공사운드컬처센터
이란예술위원회

소문과 빌런의 밤

2024 주제기획
소문과 빌런의 밤
2024.5.2. - 6.29.

총괄 이용미
전시 기획 조현아
전시 보조 우나르새, 유미연, 최정현
교육 이정진
전시 해설 김진숙
사진 전병철
영상 로그아트
디자인 만오 스튜디오
작품 설치 다빈아트
인쇄 더문
작가 이은영, 봄화랑(서울) 제공

발행처 우민아트센터
발행인 이용미
발행일 2024.6.27.
ISBN 9-123456-123456

© 우민아트센터, 2024
이 도록에 수록된 사진 및 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
있으며 그 외의 내용과 편집에 관한 권한은
우민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우민아트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164 우민타워 B1
www.wuminartcenter.org
info@wuminartcenter.org
T. 043-222-0357 / 043-223-0357

본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우민재단

 우민아트센터
wumin art center

